

논문 18

과외가 학습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 상 진*·정 성 석**·양 성 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내신성적 비중의 강화에 초점을 둔 교육인적자원부의 2008학년도 대입제도 도입 발표 이후, 또 다시 과외열풍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영·수 중심의 과외가 이루어졌지만, 내신성적 비중이 높아진다면 국민윤리, 공통과학, 공통사회, 심지어 고교 1년 국민공통기본과정인 기술, 가정을 비롯해 예체능까지 과외가 성행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과외문제는 교육 관련 문제 중에서 항상 중심이 있어왔고, 어떠한 제도 개혁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성적 중심으로 학생선발이 진행되는 한 좀처럼 사라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최근 사교육 실태에 관해 조사한 연구결과(최상근 외, 2003)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83%, 중학생의 75%, 고등학생(일반계)의 57%가 과외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외 수강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고등학생(일반계)들의 경우도 도시 지역일수록 과외 수강 비율이 현저히 높아져서, 광역시의 경우 65%, 서울 강남 지역의 경우는 92%의 학생들이 과외를 수강하는 등 과외가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과외가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아직도 미미한 상태이다(상경아·백순근, 2005).

현재 과외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부정적 시각과 견해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과외 효과에 대한 논쟁은 실증적인 사실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기보다는 주장에 의존하여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과외 문제는 공교육 기관은 좋고, 사교육기관은

*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

** 전북대 통계학과 교수

*** 신라대 교육학과 교수

나쁘다는 이분법적인 판단보다는 사교육이 과연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느냐 하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통해 공교육과 사교육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과외 관련 연구들은 주로 과외 실태나 현황, 사교육비 지출 현황, 과외에 대한 학생·학부모들의 인식을 다룬 연구들(강무섭 외, 1991; 윤정일, 1997; 김양분 외, 2002; 최상근 외, 2003; 양정호, 2005)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외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도 있었지만(한대동 외, 2001; 이해명, 2001; 이종태 외, 2002; 오영수 외, 2003; 양정호, 2003; 상경아·백순근, 2005), 연구자마다 연구결과가 달리 제시되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 최근 김태일(2005)의 연구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사교육이 대학진학에는 도움이 되지만 대학 성적과는 함수관계가 별로 없고, 이는 사교육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만 낳는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대학생 선발을 왜곡하고 있으므로 정책 변화 등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자마다 수집한 자료가 가지는 정확성이나 신뢰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과외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를 특정 교과목에만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과외의 전반적인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지난 2004년에 전국 중학교, 일반고, 실업고 3학년 학생 6,000명을 대상으로 학생 개인, 교사, 학교, 가정환경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자료는 앞서 기술한 과외활동과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 차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과외가 학업성취도¹⁾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수준과 과외 경험 유무, 과외의 종류, 과외 투입 시간, 그리고 과외비 지출 규모 등 과외실태를 조사하고, 과외의 도움 정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규명하며, 이들 요인이 학업성취도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아울러 학교요인(학교시설, 환경), 개인의 내적 요인(개인의 내적 고민, 가정환경과 건강에 대한 인식, 자아인식 등), 그리고 가정배경(가구소득, 부모학력, 과외비 및 문화비 규모 등) 요인이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첫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수준과 과외 관련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한다.

- 학업성취도 관련 일반적 특성으로 개인의 내적 요인(학생들의 고민과 걱정, 가정환경에 대한 인식), 가정배경요인(가구소득, 문화비용, 과외비 수준), 학업성취 요인(전교석차비율과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업성취 수준),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 등을 조사한다.
- 과외 관련 일반적 특성으로 과외 경험 유무, 과외의 종류, 과외 투입시간, 과외비 지출

1)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학업성취도 관련 자료는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적 원자료가 아니라 [한국교육고용패널]에서 조사한 학생 개개인의 전교석차비율과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교과목별 학업성취도 수준에 근거하고 있음.

규모, 과외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다.

둘째, 과외 요인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한다.

- 과외 경험 유무에 따른 학업성취도(전교석차비율과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업성취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다.
- 과외 투입 시간과 학업성취도(전교석차비율과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업성취 수준)와의 관계를 규명한다.
- 과외비 지출 규모와 학업성취도(전교석차비율과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업성취 수준)와의 관계를 규명한다.

셋째, 학교요인(학교시설, 환경), 개인의 내적 요인(개인의 내적 고민, 가정환경에 대한 인식 등), 그리고 가정배경(가구소득, 부모학력, 과외비 규모 등) 요인이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요 연구내용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과외실태 및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 분석
 - 과외와 사교육비의 개념과 특징
 - 학업성취도 관련 요인
 - 과외 실태와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분석
- 학업성취도와 과외 실태 분석
- 과외 효과에 대한 분석
 - 과외와 학업성취도와 관계
 -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3.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중·고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종속변수로 놓고 과외 경험 유무, 교과목별 과외 경험, 과외 투입 기간, 과외비 지출 규모, 그리고 기타 변수(성별, 개인의 내적 요인, 학교요인, 가정배경 요인 등)들을 독립변수로 분석하였다.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소프트웨어인 SPSS10.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수 및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 2) 조사대상자의 학업성취도, 과외 관련 특성 등 학업성취 관련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 3) 과외경험유무에 따른 학업성취도와의 차이분석을 위해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과외투입시간, 과외비 지출규모 등에 따른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4) 학업성취도를 대변하는 전교석차비율과 학생들이 인식하는 각 교과와 학업성취 정도를 대상으로 관련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별 투입방식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재까지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자료가 1차년도 자료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업성취도, 과외 수준간의 차이 비교는 횡단비교를 실시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약점은 이후 패널 조사 자료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종단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과외와 사교육비의 개념과 특징

1961년 9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뒤 1989년 6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가, 2000년 4월 과외교습금지에 대한 위헌판결에 따라 2001년 현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2001.7.7)"으로 명칭이 개정되었다. 동 시행령에 의하면, "과외 교습이라 함은 각급 학교의 학교 수업 이외의 수업을 받는 일체의 교습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학교 단계인 정규과정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로 개별지도나 학원에서 시행하는 과외 수업의 광범위한 영역으로 정의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과외는 과외교육, 과외교습, 과외학습, 과외지도 등 용어 사용이나 정의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과외의 범위와 개념이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사전적으로는 '과외수업은 학교수업이 끝나고 나서 학교에 남아서, 또는 집이나 학원 등에서 학습하는 활동(네이버 백과사전)'이라고 한다.²⁾ 이와 같은 과외는 본래 학습이 부진하거나 결손된 학생에게는 학교 수업의 보충·반복학습이 되며, 보다 우수하고 능력이 있는 학생에게는 심화학습의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요즘은 보충·심화학습은 물론 주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학습지도, 나아가 선행학습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물론 예체능학과의 경우 상급학

2) 이 연구에서는 편의상 과외교육, 과외교습, 과외학습, 과외지도 등의 용어를 통칭하여 '과외'로 사용하고, 과외와 사교육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교진학이나 인성과 품성의 바람직한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으로 주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과외는 보충학습이나 선수학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내용상으로는 대부분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학시험과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심화학습’은 충분한 학습 진전을 보이고 있는 학생들의 성취정도를 보다 높이고,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도전감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과제의 내용이나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학습활동으로 구성하여 진행하는 학습프로그램,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학습도서관 이용, 조별 연구활동과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경험영역의 확충, 교과내용 자체를 확충하여 많은 종류의 문제해결 등으로 학습을 심화시키는 법, 상급학교 내용을 앞당겨서 자율학습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물론 실제로 과외학습에서의 심화학습은 일부 영재교육을 제외하고는 특수목적고나 경시대회입상, 명문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교육으로 전략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과외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교육인적자원부의 2003년도 사교육비(과외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시학원 학습 및 보습학원 학습에서부터 개인과외학습, 그룹과외학습, 특기·재능학원 과외학습, 특기·재능 개인/그룹과외학습, 방과후 교내 특기/적성 교육³⁾, 학습지 및 통신학습(인터넷, 교육방송, 전화),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과외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실행되고 있는 학교교육이외의 전반적인 교육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과외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현재와 같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도구적 가치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적·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은 학생들의 심리적 압박감과 과중한 학습시간으로 인하여 심신의 발달이 저해된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학교교육을 소홀히 여기는 학습태도를 낳고, 과외교육비용의 과대지출로 가계에 부담을 주며, 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교육적 문제와 아울러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과외는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실행되고 있으면서 교육적·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함에 따라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이에 대한 해석과 분석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비’는 말 그대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그러나 교육비는 교육목적과 관련성에 기준을 두고 분류하면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로 구분할 수 있고⁴⁾, 경비의 운영 형태에 따라서는 공공의 회계절차를 거쳐 교육에 투입되는 공교육비와 그렇지 않은 사교육비로 분

3) 방과 후 학교 내 특기·적성교육은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대동소이하다. 전체 학생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보충수업(특별보충수업)과 학습 부진아 학생들을 위한 보충수업, 상위학생을 위한 심화보충수업 등이 행해지고 있다. 학습 부진아 학생들을 위한 보충수업을 제외하고는 학생이 교육비를 부담하는 사교육비 학습활동이다. 아울러 동·하계 휴가 기간동안에도 학생이 경비를 부담하는 별도의 특기·적성교육(특별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4) 직접교육비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경비로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가 여기에 포함된다. 간접교육비는 교육을 받음으로 인하여 교육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는데서 오는 손실인 유실소득과 비영리교육기관이 향유하는 면세의 가치를 의미한다.

류된다(윤정일, 2004, p.266). 예를 들어 학생이 내는 납입금은 비록 부담의 주체는 개인이지만 그 집행은 학교나 정부의 공공 회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공교육비이다. 그것은 이용자에 한해서만 지불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조세 수입을 통해 획득된 재정과 똑같은 원칙에 의해 배분, 집행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사교육비는 학생들의 교재비, 사설 학원비 등과 같이 개인의 자유 계획에 의해 집행되는 경비를 말한다. 이러한 사교육비는 또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학원, 과외 등에게 지불되는 과외교육비와 다른 하나는 각종 교재구입비, 교통비, 의복비 등 교육 및 생활부대비용이다.

그러므로 공교육비는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서의 수업료는 동액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공교육비의 재원을 형성하고 있는 조세는 누구나가 다 똑같은 액수를 부담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업료/납입금의 경우도 면제를 받는 등의 장학 혜택이 주어지기도 해서 결과적으로 학생에 따라서는 차등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세나 장학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재정부담 능력의 사회적 형평성을 이미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비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개인에게 형평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천세영, 2005, p. 17).

그러나 사교육비의 경우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질의 교육서비스를 향유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이다. 그러므로 만약 공교육비에 의해 모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매우 낮을 때, 사교육활동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비용 부담능력만 있다면 개인들은 사교육비를 가능한 많이 지출하려 들 것이다. 이처럼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놓여 있다고도 할 수 있다(천세영, 2005, pp. 17~18).

2. 학업성취도 관련 요인

학업성취도란 학습의 결과로써 습득된 지식이나 기능의 정도를 의미한다. 학업성취는 학습에 의해서 얻어진 능력, 혹은 교육적 효과로서 구체적 수단에 의해 측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업성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학업성취란 학교가 설계, 제공하는 교수-학습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교육 목표의 달성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신세호, 1983). Hoy와 Miskel(2005, pp.414-415)은 학생의 학업성취는 인지적, 정의적, 심리적 발달의 특징을 포함한 광의의 영역으로 그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업성취도는 학생들의 성적은 물론 태도변화, 도덕성 함양 등 규범적 측면까지 고려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업성취도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들은 주로 측정 가능한 학업성적을 평가지수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아직 합의된 견해는 없다는 사실이다. 학업성취도에 대한 연구는 Coleman(1966)에 의해 제기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이 학교외적요인인 가정배경과 동기학생들의 특성 또는 그 학교학생

들의 특성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업성취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반적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학교내적요인과 학교외적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될 수 있다(Hanushek, 1981, 1989; Childs & Shakeshaft, 1986; Walberg & Folwer, 1987; Cohn & Rossmiller, 1987; Stern, 1989; Levine & Lezzotte 1990; Monk, 1990; Cohn & Geske, 1990; Holcomb, 1991; 김신일, 1993; 반상진, 1997). 학교내적요인은 교육비에 의해 규제 받는 요인들로서 우선적으로 학교의 교육조건이 이에 포함된다. 즉 교사·학생비율, 시설수준, 행정비 수준 등이 포함된다. 둘째로 학교특성을 보여주는 학급편성 및 규모요인, 셋째로 교사요인으로서 교사의 학력수준, 봉급수준, 경력수준 등이 고려되고, 넷째로 학생요인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 마지막으로 교수-학습요인으로서 교육매체를 활용한 교수방법, 교과당 수업시간, 수업절차 등의 요인들이 학교내적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아울러 학교내적요인이지만 교육비로 통제할 수 없는 뚜렷한 교육목적, 학교의 문화와 풍토, 교육행정이 지도성, 교사의 높은 기대수준 등의 요인들이 고려되고 있다.

한편 학교외적요인으로는 교육비에 의해 규제될 수 없는 요인들로서 주로 학생들의 선천적 능력(IQ, 적성, 동기화, 선행학습경험 등)과 후천적 노력(태도, 자신감, 의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등), 사회·경제적 배경(SES), 동료관계, 그리고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문화적 및 정치 경제적 환경요인들이 고려된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우리가 Coleman(1966)의 연구 결과 즉 학교외적요인이 학업성취도에 더욱 많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수용한다면 자칫 학교무용론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유전 및 환경의 차이 때문에 형성된 학생의 지적능력의 차이를 학교교육을 통해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학교가 학생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Coleman 연구가 갖게 되는 오류는 학교변수로서 단지 시설, 교사·학생비율,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사경력 등 교육비로 통제할 수 있는 요인들만 고려했다는 사실이다(Levin, 1995: 283-284). 실제로 학습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교수학습과정, 교육과정조직, 교사지도방법은 물론이고, 행정체제, 구성원의 의욕과 분위기, 전통과 학풍 등 학교 및 학급의 문화·풍토와의 관련요인 등도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것은 학업성취도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첫째, 성적이 좋은 학생은 머리가 우수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믿음과, 둘째로 학교의 질적 수준이 높으면 학생의 성적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낮아진다는 믿음이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에 대해 어느 것이 옳다라고 결론짓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듯이 학업성취도는 전적으로 개인의 지적 능력과 노력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의 질적 요인만으로 좌우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학업성취도는 생각 이상으로 많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반상진, 1997).

따라서 학업성취도 관련요인에 대해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실을 고려한다면, 학교내·외적인 요인 모두가 학업성취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는 지속되어야 한다.

3. 과외 실태와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 분석

가. 과외 실태조사 연구

우리 교육계는 오랫동안 과외망국론이 제기되어 왔고, 우리나라 교육 관련 문제 중에서 과외는 늘 핵심현안문제였다. 1971년 중학교 무시험 입학과 1974년 고교평준화 정책 등의 사교육 관련 억제 정책 이후에 2000년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조치 위헌 결정으로 과외가 대도시를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2003년도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3년도 전체 과외학습비(사교육비)는 13조 6천억 원이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평균 23만 8천원으로 나타나 2001년 조사에 비해 22.8%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규모를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규모 비례해서 늘어났으며, 학부모가 판단한 자녀의 성적수준에 따라 사교육비 규모를 분석한 결과 성적수준이 상위권으로 갈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결과 교과와 관련된 사교육에 83%정도가 참여하고, 예체능 중심 사교육에는 34.8%가 참여하고 있으며, 초·중등학생들의 72.6%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고,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가 가장 높았으며, 실업계보다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상근 외, 2003).

과외를 시키는 이유는 학교 급에 관계없이 학생과 학부모의 경우는 “상급학교 진학 때문에” 라는 반응이 가장 높은 반면, 교사는 “사회문화 풍토 때문에”라고 답을 했다(최상근 외, 2003). 대부분의 과외가 학교교과목(국어, 영어, 수학)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과외의 주원인이 상급학교 진학 때문이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과외열풍도 현재와 같은 경쟁적인 입시제도가 만들어 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1997)의 조사연구에서도 중·고등학생들은 실력보충과 대학진학을 위해,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또는 부모의 강요 등에 의해 과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중·고등학교로 구분하여 배경변인(사회경제적인 변인, 지역변인, 부모의 변인)과 매개변인(학교불만족변인, 선발제도변인, 심리적변인, 문화풍토변인)을 종속변인(학부모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에 어느 정도 결정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연구·분석한 사교육비 지출 결정변인 분석에 따르면, 모든 집단에서 매개변인보다는 배경변인이 사교육비 지출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공교육내실화나 대입제도 개선, 학부모의 교육관 개선, 사회문화풍토 개선으로 사교육비를 줄이려는 정책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사회경제적 배경과 부모의 학력, 지역에 따른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교육복지 측면에서 교육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현진, 2004).

최근까지 수행된 사교육관련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우선 먼저 자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배경변수와 가족의 구조적 특징들이 자녀들의 사교육(과외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사교육이 보편화되고 이에 따라 총 사교육에 따른 비용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변수와 사교육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한다(이승신, 2002; 이주호, 김선웅, 2002). 사교육비의 지출 추세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관련 변수와 가구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지역간 계층간에 따라서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정도가 더욱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양정호, 2004).

실제로 2004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특성조사에서 전체 3,384명 중 시·도별 합격자를 보면, 서울이 가장 많은 1,297명으로 38.3%를 차지했다.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입학 비율은 55%나 됐다. 수도권 출신 합격자 비율은 2002학년도(50.9%)에 절반을 넘어선 이래, 2003학년도 52%, 2004학년도 54.9%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신입생의 69.1%가 과외를 받았으며, 입학 형태별로는 정원 외 학생의 70.4%가 과외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수시모집 학생의 67.7%, 정시모집 학생의 54.3%가 과외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69.3%는 과외 경험이 입시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2004). 이와 같은 사실은 사교육이 학업성취도를 높여 지역간·사회경제적 지위간의 차이를 넓힌 것으로 판단된다.

과외에 대한 대부분의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과외는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교육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대학생들까지도 과외의 학업성취와 학습동기부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중·고·대학생의 80% 이상이 과외수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앞으로 과외수업을 받고 싶다는 비율은 70%에 육박하고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외수업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김홍주외, 1998). 이런 사실을 보면 과외의 역기능만을 부각시키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과외 이행 여부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판단할 수 있도록 과외가 학업성취도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나. 과외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

사교육(과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그다지 활발한 편이 아니다. 하지만 과외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학교 수업에 더 흥미를 갖게 한다는 주장과 학교수업 시간을 소홀히 대하거나 학습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상반된 주장이 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 따라 과외교육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⁵⁾ 실제로 과외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학년이나 연령, 성별, 학업성취

5)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과외학습에 대한 학업성취도에 대해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의 기준이나 평가도구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학생들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비수준별 수업

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주관적인 성취욕구와 교육배경, 교육목표 등의 다양한 변인들이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주고 있다. 과외가 학생의 학습태도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의지력 등 개인의 내재적 요인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다양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7)의 조사연구에서도 과외 수업이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과외로 인해 학교수업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는 질문에 초등학생의 58.5%와 중·고등학생의 42.6%가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과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은 과외교육이 가장 좋은 점은 33.7%가 “성적이 향상되는 것”이라고 반응했다. 그 다음으로 20.4%는 “공부하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볼 사람이 있다는 것”, 18.6%는 “공부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응하였다. 약 72.7%의 응답자들이 학습효과와 관련하여 과외의 좋은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학습분야의 과외가 학업성적이나 실력향상에 도움되는 정도에 대해서 응답자의 51.3%는 “조금 도움이 된다”, 40.1%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반응했으며 2.4%만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응했다(임연기, 2001). 이는 과외교육이 갖고 있는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복합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과외교육의 학교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부족하거나 부진한 학교공부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것 외에도 수준별 개인학습 기능을 하여 지속적이고 활동적인 학습활동을 자극할 수 있으며, 심화학습과 전문적인 내용 학습에 효과적이고, 학습에 대한 집중력과 이해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

한편, 과외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지만 교육적 부작용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과외교육의 단점에 대해서 시간부족 30.9%, 학습측면에서의 장애 22.9%, 경제적 부담 22.8%, 그리고 건강 19.9% 순으로 반응하였다(임연기, 2001).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나친 과외교육은 신체적·정신적인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수도 있다. 학습이라는 측면에서도 자율적인 학습 습관을 방해하여 의존적이고 타율적인 학습습관을 가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학업성취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 대학이나 사회에서도 과외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사교육비가 가정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가구 수입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0~19%가 34.9%로 가장 많았으며, 20~29%가 21.8%였으며, 30~39%도 14.3%나 되었다. 사교육비가 가계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인식을 보면 “많은 부담이 된다”가 28.7%, “약간 부담이 된다”가 41.7%로 사교육비는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임연기, 2001).

보다는 맞춤형 수준별 과외학습활동에서 더 친근하고 우호적인 학습태도를 보인다. 이런 연유로 학생들은 과외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반면 교사들은 대조적으로 과외가 학교수업의 흥미와 관심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아울러 과외가 학교교육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학생들의 학교수업에 대한 집중력 저하와 수업 소홀이 가장 심각한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학교교육의 불신과 무시를 비롯해 학력지상주의와 입시위주 교육의 부채질, 학생들 간의 위화감 조성 등 비교육적인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과외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 부정적 시각과 견해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교육의 문제는 공교육 기관은 좋고, 사교육기관은 나쁘다는 이분법적인 판단보다는 사교육(과외)이 과연 교육적으로 효과적이나 하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통해 공교육과 사교육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Ⅲ. 분석 결과

이 연구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과외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학업성취 및 과외 관련 특성을 알아본 후에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 <표 2>와 같으며, 참여 대상자의 수는 일반계 고등학생 2000명, 실업계 고등학생 2000명, 중학생 2000명이었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자신의 건강상태, 하루평균 수면시간, 부모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월평균 문화비용, 월평균 사교육비 등을 조사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응답자의 53.6%가 남학생이었으며 46.4%는 여학생이었다. 응답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에서는 44.7%가 건강하다고 답변하였으며, 33.9%가 보통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건강상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분포를 나타냈지만, 집단별로 보면 일반계 학생의 수면시간이 가장 짧았고, 그 다음은 실업계 학생, 중학생의 순이었다. 부모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으며, 일반계와 중학교가 비슷한 수준이지만 실업계는 상대적으로 부모의 학력이 낮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분	도수 (%)			전체학생
		일반계	실업계	중학생	
성 별	남자	1117 (55.9%)	1105 (55.3%)	996 (49.8%)	3218 (53.6%)
	여자	883 (44.2%)	895 (44.8%)	1004 (50.2%)	2782 (46.4%)
자신의 건강상태	매우 허약하다	7 (0.4%)	11 (0.6%)	10 (0.5%)	28 (0.5%)
	허약하다	238 (11.9%)	206 (10.3%)	167 (8.4%)	611 (10.2%)
	보통이다	673 (33.7%)	733 (36.7%)	630 (31.5%)	2036 (33.9%)
	건강하다	884 (44.2%)	855 (42.8%)	945 (47.3%)	2684 (44.7%)
	매우 건강하다	198 (9.9%)	195 (9.8%)	248 (12.4%)	641 (10.7%)
하루평균 수면시간	5시간 이하	965 (48.3%)	241 (12.1%)	70 (3.5%)	1276 (21.3%)
	6시간	758 (37.9%)	572 (28.6%)	356 (17.8%)	1686 (28.1%)
	7시간	206 (10.3%)	667 (33.4%)	821 (41.1%)	1694 (28.2%)
	8시간 이상	71 (3.6%)	520 (26.0%)	753 (37.7%)	1344 (22.4%)
부모학력	초등학교이하	194 (10.1%)	458 (23.5%)	197 (10.1%)	849 (14.6%)
	중학교	226 (11.7%)	457 (23.5%)	238 (12.2%)	921 (15.8%)
	고등학교	937 (48.7%)	876 (45.0%)	966 (49.6%)	2779 (47.7%)
	대학 이상	569 (29.5%)	157 (8.1%)	546 (28.0%)	1272 (21.9%)
합 계		2000(100.0%)	2000(100.0%)	2000(100.0%)	6000(100.0%)

2. 조사대상자의 학업성취와 과외 관련 일반적 특성

여기서는 일반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수준과 과외 관련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다. 학업성취도 관련 일반적 특성으로 개인의 내적 요인(학생들의 고민과 걱정, 가정환경에 대한 인식), 가정배경요인(가구소득, 문화비용, 과외비 수준), 학업성취 요인(전교석차비율과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업성취 수준),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과외 관련 일반적 특성으로 과외 경험 유무, 과외의 종류, 과외 투입시간, 과외비 지출 규모, 과외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보았다.

학업성취도 관련 개인의 내적요인으로 조사 대상자의 고민, 걱정, 그리고 가정환경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대한 고민의 경우 실업계 학생들이 좀더 심각하고, 공부와 관련해서는 인문계가,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해서는 인문계, 실업계(고등학교 전체)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고민, 걱정과 가정환경에 대한 인식 정도

특성	구분	도수 (%)			전체학생
		일반계	실업계	중학생	
공부·학교 성적문제	고민·걱정 없다	49 (2.5%)	225 (11.3%)	111 (5.6%)	385 (6.4%)
	보통이다	715 (35.8%)	1095 (54.8%)	1031 (51.6%)	2841 (47.4%)
	심각하다	954 (47.7%)	553 (27.7%)	681 (34.1%)	2188 (36.5%)
	매우 심각하다	282 (14.1%)	127 (6.4%)	177 (8.9%)	586 (9.8%)
진학·진로 문제	고민·걱정 없다	41 (2.1%)	94 (4.7%)	101 (5.1%)	236 (3.9%)
	보통이다	647 (32.4%)	791 (39.6%)	986 (49.3%)	2424 (40.4%)
	심각하다	995 (49.8%)	853 (42.7%)	708 (35.4%)	2556 (42.6%)
	매우 심각하다	317 (15.9%)	262 (13.1%)	205 (10.3%)	784 (13.1%)
가정의 경제적 형편	고민·걱정 없다	679 (34.0%)	372 (18.6%)	724 (36.2%)	1775 (29.6%)
	보통이다	1060 (53.0%)	1145 (57.3%)	1086 (54.3%)	3291 (54.9%)
	심각하다	215 (10.8%)	391 (19.6%)	156 (7.8%)	762 (12.7%)
	매우 심각하다	46 (2.3%)	92 (4.6%)	34 (1.7%)	172 (2.9%)
부모님과의 불화	고민·걱정 없다	1194 (59.7%)	1087 (54.4%)	1135 (56.8%)	3416 (56.9%)
	보통이다	683 (34.2%)	748 (37.4%)	744 (37.2%)	2175 (36.3%)
	심각하다	93 (4.7%)	122 (6.1%)	102 (5.1%)	317 (5.3%)
	매우 심각하다	30 (1.5%)	43 (2.2%)	19 (1.0%)	92 (1.5%)
이성친구 문제	고민·걱정 없다	1391 (69.6%)	1273 (63.7%)	1249 (62.5%)	3913 (65.2%)
	보통이다	474 (23.7%)	610 (30.5%)	614 (30.7%)	1698 (28.3%)
	심각하다	98 (4.9%)	91 (4.6%)	106 (5.3%)	295 (4.9%)
	매우 심각하다	37 (1.9%)	24 (1.2%)	31 (1.6%)	92 (1.5%)
친구와의 관계	고민·걱정 없다	1204 (60.2%)	1250 (62.5%)	1209 (60.5%)	3663 (61.1%)
	보통이다	728 (36.4%)	692 (34.6%)	720 (36.0%)	2140 (35.7%)
	심각하다	57 (2.9%)	48 (2.4%)	63 (3.2%)	168 (2.8%)
	매우 심각하다	11 (0.6%)	10 (0.5%)	8 (0.4%)	29 (0.5%)
나의 성격 문제	고민·걱정 없다	776 (38.8%)	706 (35.3%)	603 (30.2%)	2085 (34.8%)
	보통이다	997 (49.9%)	1058 (52.9%)	1132 (56.6%)	3187 (53.1%)
	심각하다	181 (9.1%)	195 (9.8%)	218 (10.9%)	594 (9.9%)
	매우 심각하다	46 (2.3%)	41 (2.1%)	47 (2.4%)	134 (2.2%)
나의 외모 신체 문제	고민·걱정 없다	527 (26.4%)	496 (24.8%)	428 (21.4%)	1451 (24.2%)
	보통이다	1156 (57.8%)	1108 (55.4%)	1109 (55.5%)	3373 (56.2%)
	심각하다	263 (13.2%)	305 (15.3%)	356 (17.8%)	924 (15.4%)
	매우 심각하다	54 (2.7%)	90 (4.5%)	107 (5.4%)	251 (4.2%)
합 계		2000(100.0%)	2000(100.0%)	2000(100.0%)	6000(10.0%)

한편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배경요인인 연구 대상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278만원으로 나타났고, 이 중 일반계 학생의 가구소득은 약 31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에 실업계 학생의 가구소득이 약 218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월평균 문화비용의 경우 전체학생의 평균은 약 8만원으로 나타났고, 이 중 일반계 학생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약 10만원 정도이었던 반면에 실업계 학생의 경우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전체 평균 약 21만원 정도였다. 이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일반계 학생의 경우 월평균 약 30만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실업계 학생은 약 9만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두 집단간에는 특히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 수준은 23.8만원 정도로 실업계 학생에 비해 2.5배 정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2003년 조사결과(최상근 외, 2003)인 일반계 월평균 29.9만원, 중학생 월평균 27.6만원, 그리고 실업계 월평균 18만원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일반계 학생과 실업계 학생간의 계층의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교육 및 문화 비용 투자에 차이가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표 3> 조사대상자의 학업성취도 관련 가정배경요인

특 성	Mean ± S.D			전체학생
	일반계	실업계	중학생	
월평균 가구소득	318.11 ± 206.679	217.59 ± 147.585	298.67 ± 192.296	278.01 ± 188.900
월평균 문화비용	9.56 ± 17.825	5.31 ± 11.127	9.56 ± 16.313	8.14 ± 15.479
월평균 사교육비	30.18 ± 35.397	9.42 ± 16.516	23.84 ± 22.901	21.12 ± 27.510

그리고 일반계, 실업계, 중학생에 따른 전교석차비율에 있어서 평균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ANOVA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에서 보듯이, 조사대상자의 일반계 고등학생의 평균 전교석차비율은 34.95%이었고, 실업계 고등학생은 평균 36.01%였으며, 중학생은 평균 43.1%으로서 전반적으로 중상 수준이었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생의 전교석차비율이 다른 계열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p < 0.001$).

<표 4> 조사대상자의 학업성취도(전교석차비율)의 차이

변 인	Mean ± S.D			F	p-value
	일반계	실업계	중학생		
전교석차비율	34.95 ± 32.159	36.01 ± 31.607	43.10 ± 30.847	39.438	0.000

각 교과목별에 따라 학생들이 인식하는 일반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중학생들의 학업성취 정도에 대한 분포는 다음 <표 5>와 같다.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36%가 '보통', 27.9%가 '그렇지 않다', 14.9%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78.8% 정도가 중하위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실

제 학업성취도 수준인 전교석차비율 분포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표 5>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학생들이 인식하는 수준에서는 예·체능 관련 교과를 제외한 모든 교과에서 일반계 학생보다 실업계 학생들이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실업계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진학한다는 사회적 통념과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교과목별 학업성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수준

과 목	응 답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Mean ± S.D
		그렇지않다					
국어	일반계	164 (8.2%)	555 (27.8%)	925 (46.3%)	311 (15.6%)	45 (15.6%)	2.76 ± 0.891
	실업계	181 (9.1%)	638 (31.9%)	935 (46.8%)	216 (10.8%)	30 (1.5%)	2.64 ± 0.848
	중학생	87 (4.4%)	432 (21.6%)	1038(51.9%)	377 (18.9%)	66 (3.3%)	2.95 ± 0.842
수학	일반계	579 (29.0%)	605 (30.3%)	530 (26.5%)	247 (12.4%)	39 (2.0%)	2.28 ± 1.070
	실업계	628 (31.3%)	767 (38.4%)	436 (21.8%)	142 (7.1%)	29 (1.5%)	2.09 ± 0.968
	중학생	321 (16.1%)	537 (26.9%)	639 (32.0%)	377 (18.9%)	126 (6.3%)	2.73 ± 1.130
영어	일반계	247 (12.4%)	637 (31.9%)	772 (38.6%)	300 (15.0%)	44 (2.2%)	2.63 ± 0.955
	실업계	441 (22.1%)	780 (39.0%)	611 (30.6%)	139 (7.0%)	29 (1.5%)	2.27 ± 0.929
	중학생	286 (14.3%)	613 (30.7%)	693 (34.7%)	314 (15.7%)	94 (4.7%)	2.66 ± 1.052
과학 영역	일반계	525 (26.3%)	523 (26.2%)	603 (30.2%)	285 (14.3%)	63 (3.2%)	2.42 ± 1.124
	실업계	447 (22.4%)	781 (39.1%)	643 (32.2%)	112 (5.6%)	17 (0.9%)	2.24 ± 0.889
	중학생	224 (11.2%)	623 (31.2%)	795 (39.8%)	291 (14.6%)	67 (3.4%)	2.68 ± 0.967
사회 영역	일반계	300 (15.0%)	399 (20.0%)	758 (37.9%)	441 (22.1%)	101 (5.1%)	2.82 ± 1.102
	실업계	342 (17.1%)	681 (34.1%)	753 (37.7%)	184 (9.2%)	38 (1.9%)	2.44 ± 0.964
	중학생	168 (8.4%)	554 (27.7%)	747 (37.4%)	391 (19.6%)	139 (7.0%)	2.89 ± 1.042
음악	일반계	262 (13.1%)	464 (23.2%)	720 (36.0%)	386 (19.3%)	164 (8.2%)	2.85 ± 1.163
	실업계	215 (10.8%)	501 (25.1%)	817 (40.9%)	361 (18.1%)	98 (4.9%)	2.79 ± 1.083
	중학생	195 (9.8%)	553 (27.7%)	768 (38.4%)	368 (18.4%)	116 (5.8%)	2.83 ± 1.026
미술	일반계	440 (22.0%)	550 (27.5%)	609 (30.5%)	300 (15.0%)	98 (4.9%)	2.52 ± 1.161
	실업계	335 (16.8%)	621 (31.1%)	679 (34.0%)	284 (14.2%)	76 (3.8%)	2.56 ± 1.090
	중학생	243 (12.2%)	540 (27.0%)	790 (39.5%)	324 (16.2%)	103 (5.2%)	2.75 ± 1.031
체육	일반계	189 (9.5%)	337 (16.9%)	639 (32.0%)	521 (26.1%)	312 (15.6%)	3.21 ± 1.199
	실업계	160 (8.0%)	324 (16.2%)	667 (33.4%)	530 (26.5%)	313 (15.7%)	3.24 ± 1.205
	중학생	171 (8.6%)	355 (17.8%)	698 (34.9%)	477 (23.9%)	299 (15.0%)	3.19 ± 1.149
계	일반계	2706(16.9%)	4070(25.5%)	5556(34.7%)	2791(17.5%)	866 (5.4%)	2.69 ± 0.520
	실업계	2749(17.2%)	5093(31.9%)	5541(34.7%)	1968(12.3%)	630 (3.9%)	2.53 ± 0.585
	중학생	1695(10.6%)	4207(26.3%)	6168(38.6%)	2919(18.2%)	1010(6.3%)	2.83 ± 0.578
	전 체	7150(14.9%)	13370(27.9%)	17265(36.0%)	7678(16.0%)	2506(5.2%)	2.68 ± 0.575

한편, 과외 관련 일반적 특성으로 일반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중학생에 따라 해

당 과목의 과외 경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과외를 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중학생이 36.1%, 일반계 학생이 20%, 실업계 학생이 7.1%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해당 교과목별로 보면, 중학생은 수학(65.9%), 영어(65.5%), 과학(50.5%), 국어(48.8%), 사회(40.2%) 순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수학(49.1%), 영어(40.4%), 국어(30%), 과학(14.7%), 사회(11.7%) 순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계 학생과 중학생 모두 예체능 및 직업교육 훈련 관련 교과목에 대한 과외 경험은 10%도 되지 않아 성적 위주의 과외 형태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실업계 학생은 거의 과외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과외 경험 중에서는 국, 영, 수 교과목보다는 예체능 및 직업교육훈련 교과목에 대한 과외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과적으로 중학생은 65.9%, 일반계 고등학생은 49.1%, 실업계 고등학생은 10.3% 정도 과외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6> 해당 과목 과외 경험 여부

과 목	응 답	있다	없다
국어/언어/논술	일반계	599 (30.0%)	1401(70.1%)
	실업계	162 (8.1%)	1838(91.9%)
	중학생	976 (48.8%)	1024(51.2%)
수학/수리	일반계	981 (49.1%)	1019(51.0%)
	실업계	149 (7.5%)	1851(92.6%)
	중학생	1318(65.9%)	682 (34.1%)
영어/외국어	일반계	807 (40.4%)	1193(59.7%)
	실업계	205 (10.3%)	1795(89.8%)
	중학생	1309(65.5%)	691 (34.6%)
과학영역	일반계	293 (14.7%)	1707(85.4%)
	실업계	23 (1.2%)	1977(98.9%)
	중학생	1009(50.5%)	991 (49.6%)
사회영역	일반계	234 (11.7%)	1766(88.3%)
	실업계	43 (2.2%)	1957(97.9%)
	중학생	803 (40.2%)	1197(59.9%)
예·체능(진학)	일반계	163 (8.2%)	1837(91.9%)
	실업계	193 (9.7%)	1807(90.4%)
	중학생	127 (6.4%)	1873(93.7%)
예·체능(취미)	일반계	94 (4.7%)	1906(95.3%)
	실업계	197 (9.9%)	1803(90.2%)
	중학생	196 (9.8%)	1804(90.2%)
직업 교육 훈련	일반계	16 (0.8%)	1984(99.2%)
	실업계	163 (8.2%)	1837(91.9%)
	중학생	26 (1.3%)	1974(98.7%)

<표 7>은 가장 오래된 과외 종류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표에서 보듯이, 일반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중학생 모두 교과목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80% 이상이 주로 학원수강과 개인과외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그룹과외, 인터넷/통신과외, 학습지, 방과후

과외 순으로 오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내 방과후 과외는 국가의 기대와는 달리 직업교육훈련 교과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가장 오래한 과외 종류

과 목	응 답	학원수강	개인과외	그룹과외	학습지	인터넷/ 통신과외	학교내 방과후과외
국어/언어 /논술	일반계	405 (67.6%)	69 (11.5%)	36 (6.0%)	30 (5.0%)	39 (6.5%)	20 (3.3%)
	실업계	108 (66.7%)	30 (18.5%)	4 (2.5%)	9 (5.6%)	5 (3.1%)	6 (3.7%)
	중학생	834 (85.5%)	42 (4.3%)	31 (3.2%)	38 (3.9%)	23 (2.4%)	8 (0.8%)
수학/수리	일반계	442 (45.1%)	369 (37.6%)	104 (10.6%)	22 (2.2%)	27 (2.8%)	17 (1.7%)
	실업계	77 (51.7%)	52 (34.9%)	3 (2.0%)	8 (5.4%)	3 (2.0%)	6 (4.0%)
	중학생	951 (72.2%)	189 (14.3%)	72 (5.5%)	74 (5.6%)	25 (1.9%)	7 (0.5%)
영어/외국어	일반계	392 (48.6%)	234 (29.0%)	79 (9.8%)	33 (4.1%)	54 (6.7%)	15 (1.9%)
	실업계	109 (53.2%)	53 (25.9%)	7 (3.4%)	23 (11.2%)	7 (3.4%)	6 (2.9%)
	중학생	978 (74.7%)	158 (12.1%)	74 (5.7%)	71 (5.4%)	20 (1.5%)	7 (0.5%)
과학영역	일반계	187 (63.8%)	30 (10.2%)	15 (5.1%)	14 (4.8%)	44 (15.0%)	3 (1.0%)
	실업계	17 (73.9%)	3 (13.0%)	0 (0.0%)	2 (8.7%)	1 (4.3%)	0 (0.0%)
	중학생	900 (89.2%)	40 (4.0%)	20 (2.0%)	17 (1.7%)	29 (2.9%)	3 (0.3%)
사회영역	일반계	113 (48.3%)	14 (6.0%)	6 (2.6%)	17 (7.3%)	70 (29.9%)	14 (6.0%)
	실업계	27 (62.8%)	6 (14.0%)	0 (0.0%)	2 (4.7%)	6 (14.0%)	2 (4.7%)
	중학생	746 (92.9%)	13 (1.6%)	11 (1.4%)	5 (0.6%)	25 (3.1%)	3 (0.4%)
예·체능 (진학)	일반계	122 (74.8%)	28 (17.2%)	7 (4.3%)	0 (0.0%)	0 (0.0%)	6 (3.7%)
	실업계	161 (83.4%)	13 (6.7%)	7 (3.6%)	2 (1.0%)	4 (2.1%)	6 (3.1%)
	중학생	96 (75.6%)	18 (14.2%)	0 (0.0%)	3 (2.4%)	4 (3.1%)	6 (4.7%)
예·체능 (취미)	일반계	68 (72.3%)	15 (16.0%)	4 (4.3%)	0 (0.0%)	1 (1.1%)	6 (6.4%)
	실업계	163 (82.7%)	12 (6.1%)	8 (4.1%)	2 (1.0%)	6 (3.0%)	6 (3.0%)
	중학생	145 (74.0%)	29 (14.8%)	5 (2.6%)	1 (0.5%)	6 (3.1%)	10 (5.1%)
직업 교육 훈련	일반계	11 (68.8%)	1 (6.3%)	0 (0.0%)	0 (0.0%)	0 (0.0%)	4 (25.0%)
	실업계	141 (86.5%)	4 (2.5%)	1 (0.6%)	2 (1.2%)	2 (1.2%)	13 (8.0%)
	중학생	14 (53.8%)	1 (3.8%)	1 (3.8%)	0 (0.0%)	1 (3.8%)	9 (34.6%)

한편 과외를 경험한 일반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중학생에 따라 해당 과목의 1주일 동안 과외 총 시간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에 의하면 실업계 학생이 1주일 동안 평균 6.1시간, 일반계 학생이 평균 5.81시간, 그리고 중학생이 평균 4.09시간을 과외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과목별 과외 경험과는 다르게 1주일 동안 국, 영, 수 과외에 대한 투입 시간보다는 예체능 교과목에 대한 투입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일반계 학생들 중에서 진학과 관련이 있는 예·체능 과외를 1주일 동안 평균 12.64시간을 하고 있었다.

사교육(학원, 과외, 학습지 등)이 성적향상 및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반계 학생의 62% 정도, 중학생의 56.1%, 실업계 학생의 40.6% 정도가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일반계 고등학생일수록 과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9> 참조).

<표 8> 과외 총 시간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과 목	응 답	N	평 균	표준편차
국어/언어/논술	일반계	599	4.31	2.751
	실업계	162	6.13	5.403
	중학생	976	4.04	3.232
수학/수리	일반계	981	4.74	2.791
	실업계	149	5.13	3.784
	중학생	1318	4.60	2.889
영어/외국어	일반계	807	4.28	2.544
	실업계	205	4.80	3.345
	중학생	1309	4.54	2.937
과학 영역	일반계	293	4.31	2.590
	실업계	23	3.87	2.341
	중학생	1009	3.31	2.008
사회 영역	일반계	234	3.79	2.285
	실업계	43	3.40	2.049
	중학생	803	2.90	1.864
예·체능 (진학)	일반계	163	12.64	8.695
	실업계	193	9.63	7.270
	중학생	127	4.88	5.197
예·체능 (취미)	일반계	94	5.66	3.659
	실업계	197	7.62	5.762
	중학생	196	4.45	3.612
직업교육 훈련	일반계	16	6.75	4.344
	실업계	163	8.21	5.606
	중학생	26	3.96	2.959
전 체	일반계	1345	5.81	3.909
	실업계	648	6.10	5.927
	중학생	1487	4.09	2.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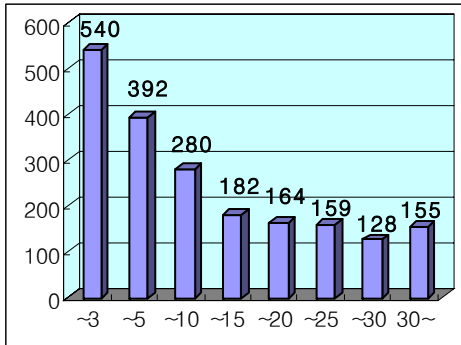
<표 9> 과외의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

응 답 계 열	전혀 도움이 안된다	도움이 안된다	보통이다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평 균
일반계	44 (2.2%)	155 (7.8%)	564 (28.2%)	1087(54.4%)	150 (7.5%)	3.57
실업계	107 (5.4%)	266 (13.3%)	812 (40.6%)	718 (35.9%)	93 (4.7%)	3.20
중학생	44 (2.2%)	166 (8.3%)	670 (33.5%)	985 (49.3%)	135 (6.8%)	3.50
전 체	195 (3.3%)	587 (9.8%)	2046 (34.1%)	2790 (46.5%)	378 (6.3%)	3.42

한편,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학교나 학원, 과외를 제외하고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1주일 동안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 본 결과는 다음 <표 10>에 나타나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3시간 미만'이 27.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3시간-5시간'이 19.6%, '5시간-10시간'이 14.0%, '10시간-15시간'이 9.1%, '15시간-20시간'이 8.2%, '20시간-25시간'이 8.0%, '30시간 이상'이 7.8%, '25시간-30시간'이 6.4%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계 학

생의 61% 정도가 1주일 동안 10시간 미만(1일 평균 1.4시간)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외 총시간(<표 8>)까지 고려한다면 일반계 고등학생은 1주일 동안 학교 외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8.81~15.81시간(1일 평균 1.25~2.26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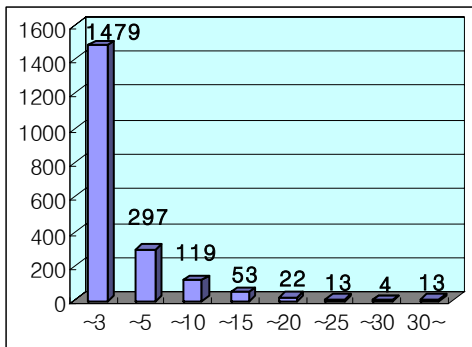
<표 10> 혼자 공부하는 시간 (일반계)



문항	도수(명)	비율(%)
3시간 미만	540	27.0
3시간 - 5시간	392	19.6
5시간 - 10시간	280	14.0
10시간 - 15시간	182	9.1
15시간 - 20시간	164	8.2
20시간 - 25시간	159	8.0
25시간 - 30시간	128	6.4
30시간 이상	155	7.8

한편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89% 정도가 1주일에 5시간 미만 정도(1일 평균 0.7시간) 혼자서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표 11> 참조).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생도 과외 총시간(<표 8>)까지 고려한 1주일 동안 학교 외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평균 9.1~11.1시간(1일 평균 1.3~1.6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혼자 공부하는 시간 (실업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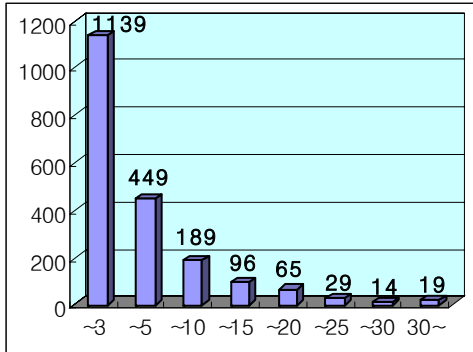
문항	도수(명)	비율(%)
3시간 미만	1479	74.0
3시간 - 5시간	297	14.9
5시간 - 10시간	119	6.0
10시간 - 15시간	53	2.7
15시간 - 20시간	22	1.1
20시간 - 25시간	13	0.7
25시간 - 30시간	4	0.2
30시간 이상	13	0.7

그리고 중학생들도 전체의 80% 정도가 1주일에 5시간 미만으로 혼자서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중학생의 경우에도 과외 총시간(<표 8>)까지 고려한 1주일 동안 학교 외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평균 7.09~9.09시간(1일 평균 1.01~1.3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량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표 13>은 일반계 고등학생, 실업계 고등학생, 중학생에 따라 학교나 학원, 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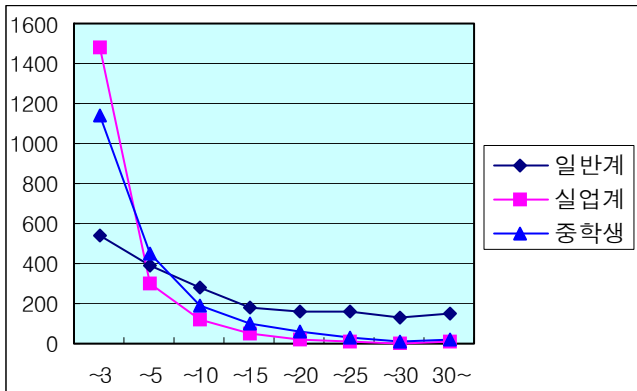
외를 제외하고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1주일 동안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표 12> 혼자 공부하는 시간 (중학생)



문항	도수(명)	비율(%)
3시간 미만	1139	57.0
3시간 - 5시간	449	22.5
5시간 - 10시간	189	9.5
10시간 - 15시간	96	4.8
15시간 - 20시간	65	3.3
20시간 - 25시간	29	1.5
25시간 - 30시간	14	0.7
30시간 이상	19	1.0

<표 13> 혼자 공부하는 시간



3. 과외경험유무가 학업성취도에 미친 영향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교육(학원, 과외, 학습지 등)이 성적향상 및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 일반계 학생의 62% 정도, 중학생의 56.1%, 실업계 학생의 40.6% 정도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어, 대체적으로 과외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외가 실제로 학업성취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과외경험유무에 따른 전교석차비율의 평균차이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그리고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전교석차비율)는 과외경험이 있는 경우가 과외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더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p < 0.05$). 즉, 과외 경험이 있는 경우에 전교석차비율이 낮으므로 성적이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생의 전교석차비율 역시 과외 경험이 있는 경우가 과외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더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49$). 이는 과외 경험이 학습성취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전체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에게는 실질적으로 평균의 차이가 크지 않아 거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영향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중학생인 경우에는 과외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의 평균(39.43)과 과외를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의 평균(53.72) 차이가 커 과외 경험이 학습성취도(전교석차비율)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석된다.

<표 14> 과외경험유무에 따른 학습성취도(전교석차비율)의 차이분석

성취도	과외경험유무		t	p-value
	과외경험 (Mean±S.D)			
	유	무		
전교석차비율(전체 학생)	36.48±30.643	40.14±33.094	4.352	0.000
전교석차비율(일반계 고등학생)	34.64±31.413	35.58±33.656	0.600	0.549
전교석차비율(실업계 고등학생)	33.56±31.076	37.19±31.803	2.410	0.016
전교석차비율(중학생)	39.43±29.494	53.72±32.221	8.847	0.000

한편, 교과목별 과외경험이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습성취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과외경험유무에 따른 학습성취도의 평균차이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5>와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교과목⁶⁾에 있어서 각 교과목에 대해 과외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 교과목의 학습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p<0.001$). 따라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교과목별 학습성취도는 대부분 과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과목별로 과외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습성취도가 더 높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표 15> 과외경험유무에 따른 학생들이 인식하는 교과목별 학습성취도의 차이분석

교과목	과외경험유무		t	p-value
	과외경험 (Mean±S.D)			
	유	무		
국어 잘함	2.96 ± 0.854	2.71 ± 0.866	10.002	0.000
수학 잘함	2.78 ± 1.095	2.08 ± 0.992	25.323	0.000
영어 잘함	2.82 ± 0.998	2.33 ± 0.948	19.080	0.000
과학 잘함	2.94 ± 0.967	2.30 ± 0.982	21.314	0.000
사회 잘함	3.08 ± 1.021	2.64 ± 1.047	12.821	0.000

6) 이 연구에서 음악, 미술, 체육 교과목에 대한 과외경험유무는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이렇게 5개 교과목만 분석하였다.

4. 과외투입시간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표 16>은 과외 투입 시간과 학업성취도 수준을 대변하는 전교석차비율 사이의 피어슨 상관계수와 유의확률을 구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과외 투입 시간과 학업성취도(전교석차비율) 사이의 관계 정도는 -0.038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외 투입 시간이 높을수록 전교석차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다고 할 수 있다($p < 0.05$). 그러므로 과외 투입 시간이 높을수록 전교석차비율이 낮으므로 성적이 더 좋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0.09로서 과외 투입 시간이 높을수록 전교석차비율이 높으므로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과외경험여부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과와 같이 과외투입시간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 계수가 전체 학생인 경우 -0.038, 중학생인 경우 상관계수 -0.174, 일반계 고등학생 상관계수 0.09,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 상관계수 -0.059로서 거의 무시할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16> 과외 투입 시간과 학업성취도(전교석차비율) 사이의 상관관계

성취도	과외투입시간	과외투입시간
전교석차비율(전체 학생)		-0.038 (p=0.025)
전교석차비율(일반계 고등학생)		0.090 (p<0.001)
전교석차비율(실업계 고등학생)		-0.059 (p=0.133)
전교석차비율(중학생)		-0.174 (p<0.001)

한편 <표 17>는 각 교과목별 과외 투입 시간과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업성취도 사이의 피어슨 상관계수와 유의확률을 구한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이 인식하는 교과목별 학업성취도는 대부분 과외 투입 시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0.061로서 과외 투입 시간이 높을수록 학생들이 인식하는 전교석차비율은 높아지고 있어 오히려 과외투입시간에 따라 성적이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교과목별 과외투입시간과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업성취도의 관계는 대부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지만, 관계의 정도는 대부분이 0.2 이하 수준으로 거의 무시할만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수학분야에 있어서는 과외투입시간과 학생들이 인식하는 수학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 지수는 0.306으로서 역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관계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과목별로 과외투입시간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학생들의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표 17> 교과목별 과외 투입 시간과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업성취도의 관계

과외시간 성취도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예체능 (진학)	예체능 (취미)	직업교육 훈련
국어 잘함	0.119 (p<0.001)	0.123 (p<0.001)	0.118 (p<0.001)	0.114 (p<0.001)	0.117 (p<0.001)	-0.004 (p=0.731)	0.015 (p=0.249)	-0.004 (p=0.735)
수학 잘함	0.206 (p<0.001)	0.306 (p<0.001)	0.252 (p<0.001)	0.278 (p<0.001)	0.169 (p<0.001)	-0.087 (p<0.001)	-0.015 (p=0.255)	-0.034 (p=0.009)
영어 잘함	0.177 (p<0.001)	0.253 (p<0.001)	0.234 (p<0.001)	0.190 (p<0.001)	0.123 (p<0.001)	-0.036 (p=0.005)	-0.032 (p=0.012)	-0.036 (p=0.005)
과학 잘함	0.138 (p<0.001)	0.211 (p<0.001)	0.164 (p<0.001)	0.266 (p<0.001)	0.080 (p<0.001)	-0.073 (p<0.001)	0.002 (p=0.866)	-0.034 (p=0.008)
사회 잘함	0.130 (p<0.001)	0.132 (p<0.001)	0.154 (p<0.001)	0.039 (p=0.003)	0.160 (p<0.001)	-0.001 (p=0.931)	0.000 (p=0.981)	-0.013 (p=0.324)
음악 잘함	0.022 (p=0.093)	0.026 (p=0.045)	0.027 (p=0.037)	-0.004 (p=0.755)	-0.004 (p=0.758)	0.073 (p<0.001)	0.064 (p<0.001)	0.030 (p=0.018)
미술 잘함	0.034 (p=0.009)	0.026 (p=0.041)	0.049 (p<0.001)	0.024 (p=0.065)	0.021 (p=0.108)	0.145 (p<0.001)	0.059 (p<0.001)	0.024 (p=0.066)
체육 잘함	-0.016 (p=0.209)	-0.040 (p=0.002)	-0.026 (p=0.041)	-0.018 (p=0.152)	-0.040 (p=0.002)	0.023 (p=0.077)	0.041 (p=0.001)	-0.015 (p=0.246)

5. 과외비 지출규모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표 18>은 과외비 지출 규모와 전교석차비율로 본 학업성취도 사이의 피어슨 상관계수와 유의확률을 구한 것이다. 과외비 지출 규모와 전교석차비율 사이의 관계 정도는 -0.010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거의 무시할만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지는 않았다(p=0.446). 이를 학생별로 보더라도 중학생인 경우 상관계수 -0.144, 일반계 고등학생 상관계수 0.061,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생 상관계수 -0.006으로서 거의 무시할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18> 과외비 지출 규모와 학업성취도(전교석차비율) 사이의 상관관계

성취도	과외비 지출	과외비 지출
전교석차비율(전체 학생)	-0.010	(p=0.446)
전교석차비율(일반계 고등학생)	0.061	(p=0.008)
전교석차비율(실업계 고등학생)	-0.006	(p=0.787)
전교석차비율(중학생)	-0.144	(p<0.001)

결과적으로 과외요인(과외 경험 유무, 과외 투입 시간, 과외비 지출 규모)과 학업성취도

요인(전교석차비율과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업성취 수준)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거의 무시할만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바와는 다르게 과외가 학업성취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은 현재 우리나라 과외 형태가 주로 학원과 개인과외로 이루어지고 있고, 내용면에서도 현재 학업진도와 연계된 보충학습과 심화학습보다는 주로 선행학습과 입시 위주로 과외가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학교 학업성취도(전교석차비율) 증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6.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별 투입방식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영향력있는 변인별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9>에 의하면 학업성취도(전교석차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유의수준 5%에서 영향력 순서대로 보면 수면시간이 2.108, 고민(공부·학교 성적 문제)이 4.351, 자아인식이 -2.728, 자신의 건강상태가 2.157, 고민(진학·진로 문제)이 -2.618, 월평균 가구소득이 -0.007, 성별이 2.355, 고민(부모님 또는 가족과의 불화)이 1.756, 학교 시설 및 환경이 -1.365, 월평균 사교육비가 0.040, 부모님의 학력이 -0.672 만큼씩 전교석차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5%였다.

구체적으로 영향력이 가장 큰 수면시간인 경우 수면시간 1시간이 증가하면 2.108의 전교석차비율 수치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도가 저하됨을 의미한다. 한편 자아인식이 1정도 증가하면 전교석차비율이 -2.728 정도 감소하여 결국 학업성취도가 상승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학업성취도(전교석차비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영향력의 차이와 관계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개인의 내재적 요인이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과외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교석차비율은 내신성적과 관련된 요인이고 이러한 요인은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수능시험 결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학교시험과 수능시험과의 연계 미흡, 경우에 따라서는 수능지향적으로 공부하는 학생과 내신지향적으로 공부하는 학생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편, 학생들이 인식하는 교과목별 학업성취도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생들이 인식하는 국어 교과목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유의수준 5%에서 영향력 순서대로 보면 자아인식이 0.276, 부모학력이 0.046, 성별이 0.082, 고민(나의 성격 문제)이 -0.044, 고민(공부·학교성적 문제)이 -0.04, 월평균 가구소득이 0.000 만큼씩 국어 교과목의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1%였다(<표 20>).

<표 19> 학업성취도(전교석차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	β	T	P-value
수면시간	2.108	6.299	0.000
고민 (공부·학교 성적 문제)	4.351	6.142	0.000
자아인식	-2.728	-3.613	0.000
자신의 건강상태	-2.157	-4.231	0.000
고민 (진학·진로 문제)	-2.618	-3.696	0.000
월평균 가구소득	-0.007	-2.867	0.004
성별	2.355	2.839	0.005
고민 (부모님 또는 가족과의 불화)	1.756	2.769	0.006
학교 시설 및 환경	-1.365	-2.032	0.042
월평균 사교육비	0.040	2.277	0.023
부모학력	-0.672	-2.106	0.035

$R^2 = 0.025$

<표 20> 국어교과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	β	T	P-value
자아인식	0.276	13.766	0.000
부모 학력	0.046	5.434	0.000
성별	0.082	3.647	0.000
고민 (나의 성격문제)	-0.044	-2.708	0.007
고민 (공부, 성적문제)	-0.040	-2.638	0.008
월평균 가구소득	0.000	2.005	0.045

$R^2 = 0.051$

<표 21>에 의하면 학생들이 인식하는 수학 교과목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유의수준 5%에서 영향력 순서대로 보면 부모학력이 0.073, 고민(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0.128, 자아인식이 0.169, 월평균 사교육비가 0.004, 학교시설 및 환경이 0.107, 고민(진학·진로 문제)이 -0.082, 월평균 가구소득이 0.000, 성별이 -0.064 만큼씩 수학 교과목의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7.2%였다.

<표 21> 학생들이 인식하는 수학교과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	β	T	P-value
부모 학력	0.073	6.767	0.000
고민 (가정의 경제적 형편)	-0.128	-6.182	0.000
자아인식	0.169	6.862	0.000
월평균 사교육비	0.004	5.998	0.000
학교 시설 및 환경	0.107	4.770	0.000
고민 (진학, 진로문제)	-0.082	-4.369	0.000
월평균 가구소득	0.000	2.934	0.003
성별	-0.064	-2.289	0.022

$R^2 = 0.072$

<표 22>에 의하면 학생들이 인식하는 영어 교과목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유의수준 5%에서 영향력 순서대로 보면 자아인식이 0.324, 부모학력이 0.085, 월평균 사교육비가 0.003, 고민(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0.092, 월평균 가구소득이 0.000, 학교시설 및 환경이 0.082, 수면시간이 -0.035, 고민(부모님 또는 가족과의 불화)이 -0.051, 고민(공부·학교 성적 문제)이 -0.04, 월평균 문화생활비가 0.002 만큼씩 영어 교과목의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2.8%였다.

<표 22> 학생들이 인식하는 영어교과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	β	T	P-value
자아인식	0.324	14.747	0.000
부모 학력	0.085	8.878	0.000
월평균 사교육비	0.003	5.902	0.000
고민 (가정의 경제적 형편)	-0.092	-4.699	0.000
월평균 가구소득	0.000	3.637	0.000
학교 시설 및 환경	0.082	4.123	0.000
수면시간	-0.035	-3.568	0.000
고민 (부모님 또는 가족과의 불화)	-0.051	-2.518	0.012
고민 (공부, 성적문제)	-0.040	-2.345	0.019
월평균 문화생활비	0.002	2.160	0.031

$R^2 = 0.128$

<표 23>에 의하면 학생들이 인식하는 과학영역 교과목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유의수준 5%에서 영향력 순서대로 보면 자아인식이 0.218, 성별이 -0.209, 고민(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0.086, 학교시설 및 환경이 0.122, 부모학력이 0.046, 고민(진학·진로 문제)이 -0.084, 월평균 사교육비가 0.001 만큼씩 과학영역 교과목의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9%였다.

<표 23> 학생들이 인식하는 과학영역교과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	β	T	P-value
자아인식	0.218	9.481	0.000
성별	-0.209	-8.025	0.000
고민 (가정의 경제적 형편)	-0.086	-4.497	0.000
학교 시설 및 환경	0.122	5.811	0.000
부모 학력	0.046	4.765	0.000
고민 (진학, 진로문제)	-0.084	-4.778	0.000
월평균 사교육비	0.001	2.967	0.003

$R^2 = 0.059$

학생들이 인식하는 사회영역 교과목의 학습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유의수준 5%에서 영향력 순서대로 보면 자아인식이 0.337, 부모학력이 0.074, 고민(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0.074, 수면시간이 -0.027, 자신의 건강상태가 -0.037, 고민(나의 외모·신체 문제)이 -0.038 만큼씩 사회영역 교과목의 학습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9%였다(<표 24>).

<표 24> 학생들이 인식하는 사회영역교과의 학습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	β	T	P-value
자아인식	0.337	13.699	0.000
부모 학력	0.074	7.645	0.000
고민 (가정의 경제적 형편)	-0.074	-3.812	0.000
수면시간	-0.027	-2.517	0.012
자신의 건강상태	-0.037	-2.240	0.025
고민 (나의 외모, 신체문제)	-0.038	-2.083	0.037
$R^2 = 0.059$			

<표 25>에 의하면 학생들이 인식하는 음악 교과목의 학습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유의수준 5%에서 영향력 순서대로 보면 자아인식이 0.397, 성별이 0.313, 학교시설 및 환경이 0.126, 부모학력이 0.033, 고민(이성친구 문제)이 0.054 만큼씩 음악 교과목의 학습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7.2%였다.

<표 25> 학생들이 인식하는 음악교과의 학습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	β	T	P-value
자아인식	0.397	16.208	0.000
성별	0.313	11.276	0.000
학교 시설 및 환경	0.126	5.603	0.000
부모 학력	0.033	3.427	0.001
고민 (이성친구 문제)	0.054	2.595	0.009
$R^2 = 0.072$			

<표 26>에 의하면 학생들이 인식하는 미술 교과목의 학습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유의수준 5%에서 영향력 순서대로 보면 자아인식이 0.360, 성별이 0.283, 학교시설 및 환경이 0.108, 수면시간이 0.035, 부모학력이 0.028 만큼씩 미술 교과목의 학습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5.7%였다.

<표 26> 학생들이 인식하는 미술교과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	β	T	P-value
자아인식	0.360	14.368	0.000
성별	0.283	10.076	0.000
학교 시설 및 환경	0.108	4.742	0.000
수면시간	0.035	3.185	0.001
부모 학력	0.028	2.797	0.005
$R^2 = 0.057$			

<표 27>에 의하면 학생들이 인식하는 체육 교과목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유의수준 5%에서 영향력 순서대로 보면 건강상태가 0.288, 성별이 -0.517, 자아인식이 0.338, 학교시설 및 환경이 0.124, 고민(이성친구 문제)이 0.138, 고민(나의 외모, 신체 문제)이 -0.09, 고민(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0.079, 고민(나의 성격 문제)이 -0.063, 고민(진학, 진로 문제)이 0.067, 부모학력이 -0.029, 고민(친구관계)이 -0.056 만큼씩 체육 교과목의 학업성취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7.1%였다.

<표 27> 학생들이 인식하는 체육교과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	β	T	P-value
자신의 건강상태	0.288	16.284	0.000
성별	-0.517	-17.755	0.000
자아인식	0.338	12.919	0.000
학교 시설 및 환경	0.124	5.371	0.000
고민 (이성친구 문제)	0.138	6.185	0.000
고민 (나의 외모, 신체문제)	-0.090	-4.162	0.000
고민 (가정의 경제적 형편)	0.079	3.759	0.000
고민 (나의 성격문제)	-0.063	-2.673	0.008
고민 (진학, 진로문제)	0.067	3.399	0.001
부모 학력	-0.029	-2.848	0.004
고민 (친구관계)	-0.056	-1.999	0.046
$R^2 = 0.171$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교과목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등 일명 주요 교과목에서는 전반적으로 자아인식과 부모학력 요인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시에 경제에 대한 고민(월평균 사교육비) 등 경제와 관련된 요인도 수학, 영어, 과학, 사회 교과목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맺음말

과외 망국론이 제기되는 우리나라에서 과외에 대한 핵심적인 논쟁은 과외 때문에 공교육이 부실해 지는 것인가, 공교육이 부실해서 과외가 성행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최근 학업성취도와 과외 관련 보고서가 다시금 교육계에 논쟁의 불씨를 던져주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평가보고서(2005.9)'에 의하면, '최고 수준의 학생들만 모아 왔다'는 전국 6개 자립형사립고 학생들이 고교 재학 중에도 사교육 과외를 더 비싸게,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자립형사립고 학생들은 10명에 7명꼴(68.2%)로 사교육을 받고 있었고, 이는 본 연구에서 밝힌 일반계 학생의 과외 경험 평균 비율 20%(국·영·수 교과인 경우 평균 39.9%)를 무려 2~3배 이상 크게 웃돌았다. 또한 자립형사립고 학생들의 월 사교육비 평균 비용은 51.7만원으로, 자립형사립고 주변 지역사회학교 학생 월평균 40.4만원보다 11만원 정도 비쌌고, 본 연구에서 산출한 일반계 학생 월평균 30만원보다 무려 21만원이 비쌌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인 '교육격차의 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나 교육적 지원 등 학생의 가정·경제적 배경이 좋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시와 농촌 학생들 사이의 학업성취도에 큰 차이가 있으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이 2003년 6월 고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와 126개 일반계 고교를 평가한 자료를 통합·분석한 결과이다(조선일보, 2005.9.14일자).

지금까지 우리나라 과열과외의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은 크게 양분화되어 있다. 고교평준화가 수준 낮은 공교육을 만들었고, 그 결과 사교육이 팽창되었다는 입장과 과열과외 현상은 고교 평준화 제도 실시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일부 학부모의 '학력·학벌주의' 교육관에 따른 지나치게 과열된 사회현상(윤종혁, 2003), 대학입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학생과 학부모의 장기적인 목표와 이윤추구논리에 바탕한 사교육시장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박부권, 2003)으로 보는 입장을 크게 대별된다.

이러한 과외 과열 현상에 대한 논쟁의 초점은 과연 과외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가 하는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수준 관련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학업성취도 관련 일반적 특성으로 우선, 개인의 내적요인인 연구 대상자의 고민, 걱정, 그리고 가정환경에 대한 인식 정도에서 가정의 경제적 형편은 대체적으로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는 반면에 공부·학교성적 문제와 진학·진로문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계일수록 그러한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의 가정배경요인인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278만원으로서, 이 중 일반계 고등학생의 가구소득은 약 318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실업계 고등학생의 가구소득이 약 218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

다. 월평균 문화비용의 경우 전체학생의 평균은 약 8만원으로 나타났고, 이 중 일반계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약 10만원 정도이었던 반면에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1/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전체 평균 약 21만원 정도였고, 그 중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월평균 약 30만원, 중학생은 월평균 23.8만원 정도로 실업계 고등학생에 비해 2.5배 정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계 고등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간의 계층의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교육 및 문화비용 투자에 차이가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부모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으며(47.7%), 나머지는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각 교과목별에 따라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업성취 정도에서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36%가 '보통', 27.9%가 '그렇지 않다', 14.9%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78.8% 정도가 중하위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교과를 불문하고 일반계 학생보다 실업계 학생들이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실업계는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진학한다는 사회적 통념과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업성취도 수준인 전교석차비율 분포(전체 평균 38%)와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과외 관련 일반적 특성으로 우선, 전반적으로 과외를 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중학생이 평균 36.1%, 일반계 고등학생이 평균 20%, 실업계 고등학생이 평균 7.1% 순으로 나타났지만, 중학생은 수학(65.9%), 영어(65.5%), 과학(50.5%), 국어(48.8%), 사회(40.2%) 순으로, 일반계 고등학생은 수학(49.1%), 영어(40.4%), 국어(30%), 과학(14.7%), 사회(11.7%) 순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일반계 고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예체능 및 직업교육 훈련 관련 교과목에 대한 과외 경험은 10%도 되지 않아 성적 위주의 과외 형태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실업계 고등학생은 거의 과외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과외 경험 중에서는 국, 영, 수 교과목보다는 예체능 및 직업교육훈련 교과목에 대한 과외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학생 모두 교과목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80% 이상이 주로 학원수강과 개인과외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그룹과외, 인터넷/통신과외, 학습지, 방과후 과외 순으로 오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실업계 고등학생이 1주일 동안 평균 6.1시간, 일반계 고등학생이 평균 5.81시간, 그리고 중학생이 평균 4.09시간을 과외 받고 있었다.

한편 일반계 고등학생의 62% 정도, 중학생의 56.1%, 실업계 고등학생의 40.6% 정도가 성적향상 및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일반계 고등학생일수록 과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셋째, 과외요인(과외 경험 유무, 과외 투입 시간, 과외비 지출 규모)이 학업성취도 요인(전교석차비율과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업성취 수준)에 미친 영향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거의 무시할만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과외가 학업성취도 증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추론된다. 오히려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일반계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과외투입시간과 과외비 지출 규모와 학업성취도 요인(전교석차비율과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업성취 수준)과는 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어 과외 요인이 학업성취도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과외는 주로 학원과 개인과외 형태이고, 내용면에서도 현재 학업진도와 연계된 수준별 보충학습이나 심화학습보다는 주로 선행학습 및 입시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인 학업성취도 증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단계별 투입방식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교석차비율을 종속변인으로 보면, 수면시간, 고민(공부·학교 성적 문제), 자아인식, 자신의 건강상태, 고민(진학·진로 문제), 월평균 가구소득, 성별, 고민(부모님 또는 가족과의 불화), 학교 시설 및 환경, 월평균 사교육비, 부모님의 학력 요인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2.5%였다.

한편 학생들이 인식하는 주요 교과별 학업성취도 정도를 종속변인으로 보면, 국어 교과목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아인식, 부모학력, 성별, 고민(나의 성격 문제), 고민(공부·학교성적 문제), 월평균 가구소득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명력 5.1%), 수학 교과목의 학업성취도에는 부모학력, 고민(가정의 경제적 형편), 자아인식, 월평균 사교육비, 학교시설 및 환경, 고민(진학·진로 문제), 월평균 가구소득, 성별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명력 7.2%). 영어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는 자아인식, 부모학력, 월평균 사교육비, 고민(가정의 경제적 형편), 월평균 가구소득, 학교 시설 및 환경, 수면시간, 고민(부모님 또는 가족과의 불화), 고민(공부·학교 성적 문제), 월평균 문화생활비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명력 12.8%).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보면, 과외가 직접적으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겠지만, 이 연구에서 얻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원인을 제기하면, 학업성취도를 대변하는 전교석차비율은 내신성적과 관련된 요인이고 이러한 요인은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수능시험 결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학교시험과 수능시험과의 연계 미흡, 수능지향적으로 공부하는 학생과 내신지향적으로 공부하는 학생 등의 학생들의 지향성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Coleman(1966)보고서 이후,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는 이 연구의 결과에도 직·간접적으로 적용된다. 저소득층 지역 학생들은 경제적 빈곤, 가정의 결손, 부모의 지원 부족, 사교육비 부담 곤란 등 가정환경 상의 불리함을 안고 있고, 이 같은 불리함이 낮은 자신감과 학습의욕, 학업성취 부진에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생의 가정배경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면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의 자본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화, 지시기반사회를 맞이하여 우리의 학교교육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분야는 외국어 능력과 정보처리 능력이다.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이러한 능력을 가진 인적자원개발은 필수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능력은 바로 자본과 연결된다고 하는 점이다. 많은 자본이 요구되는 외국어, 정보처리 능력이

강조됨에 따라 학교교육을 통한 계층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의 독특한 현상은 과외 문제는 학업성취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음을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왜곡된 학벌주의 교육관은 물론, 불안 심리, 그리고 사교육 시장의 왜곡된 정보 제공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학벌의 고리를 깨지 않는 한 과외 시장의 악순환은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연구의 결과에서 얻은 시사점이다.

참고문헌

- 강무섭·임연기·신세호·김홍주·김재웅(1991). 『과외 수업 실태 조사 연구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김양분·김미숙(2002). 『입시학원의 교육 실태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김태일(2005). 『고등학교 때 사교육이 대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사교육의 인적 자본 효과와 대학진학 효과에 대한 논의』. 한국개발연구원.
- 김현진(2004). “사교육비 지출 결정 변인 구조 분석”. 『교육행정연구』 22(1), 27-45.
- 김홍주 외(1998). 『한국의 교육비 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홍주(2000). “과외 문제의 심층 해부와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2000년도 제 2차 교육정책 포럼 자료집.
- 박부권(2003). 『고교 평준화정책의 진단과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보고서.
- 반상진(1997). “교육투자의 미시적 접근에 대한 논의; 학교교육 생산성을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6(2). 259-291.
- 백일우(1999). “과외행위에 대한 교육경제학적 이해”. 『교육학연구』. 37(4). 291-305.
- 상경아·백순근(2005). “고등학생의 과외 효과에 관한 연구”. 교육개혁포럼 월례세미나 발표논문.
- 양정호(2003). 중학생의 과외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30(2), 261-283.
- 양정호(2004). “한국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노동패널의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5(2). 121-145.
- 오영수·윤정식(2003). “일반계 고등학생의 성적결정 요인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12(1). 33~56.
- 윤정일(1997). 『초·중등학생 과외실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윤정일(2004). 『교육재정학원론』. 서울: 세영사.
- 윤종혁(2003).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종태·김양분·이인효(2002). 『선행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해명(2001). “사교육의 교육적 효과”. 한국교육포럼 2001년도 제3차 교육문제 세미나. 한국교육개발원.
- 임연기(2001). “과외비”. 『교육재정경제학사전』. 서울: 하우동설.
- 천세영(2005). 『한국교육재정 현상탐구 I』. 충남대학교 출판부.
- 최상근·김양분·유한구·김현진·이희숙(2003).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17296호 일부 개정 2001. 7.7」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7). 『과외실태조사연구』. 정책연구 제83집.
- 한대동·성병창·길임주(2001). “고등학생 학업성취에 대한 학교효과와 과외효과의 비교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1(1). 33-54.
- Childs, T.S.,& Shakeshaft, C.(1986). A meta-analysis of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al expenditures and students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 finance*, 12(2), 249-263.
- Cohn, E.,& Geske, T.G. (1990). *The economics of education* (3rd ed.). New York: Pergamon Press.
- Cohn, E., & Rossmiller, R.A.(1987). Research on effective schools: Implications for less developed countries.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31(3), 377-399.
- Coleman, J.S., et al.(1966).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Fox, James N.(1989). School finance and the economics of education: An essay review of major work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11(1), 69-83.
- Hanushek, E.A.(1981). Throwing money at school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1(1), 19-41.
- Hanushek, E.A.(1989). "The impacts of differential expenditures on school performance." *Educational researcher*, 18(4), 45-51.
- Hanushek, E.A.(1995). "Education production functions", In M. Carnoy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conomics of education* (2nd ed.). New York: Pergamon.
- Holcomb, E.(1991). *School-based instructional leadership*. Madison, WI: National Center for Effective Schools Research and Development,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Levin, H.M. (1995). "Raising educational productivity", In M. Carnoy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conomics of education* (2nd ed.). New York: Pergamon.
- Levine, D.U., & Lezzotte, L.W.(1990). *Unusually effective school: A review and analysis of research and practice*. Madison, WI: National Center for Effective School R & D,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Monk, David H.(1990). *Educational finance: An economic approach*. New York: McGraw-Hill Inc..
- Odden, Allan R.,& Picus, L.O.(2005). *School finance: A policy perspective*. New York: McGraw-Hill, Inc..
- Stern, David (1989). "Educational costs factors and student achievement in grade 3

- and 6: Some new evidence".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8(2), 149-158.
- Walberg, H.J., & Folwer, W.J.Jr.(1987). "Expenditure and size efficiencies of public school districts". *Educational researcher*, 16, 5-13.
- Willet, J. B.(1997). Measuring change: What individual growth modeling buys you. In E. Amsel & K. A. Reinger(Eds.), *Change and development*. Mahwah, N.J.: Lawrence Erlbaum.